

외환리포트

전일동향	전일대비 6.00원 상승한 1,368.60원에 마감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6.00원 상승한 1,368.60원에 마감했다.

이날 환율은 NDF 달러-원 1개월물 상승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.90원 상승한 1,364.50원에 개장했다. 간밤 트럼프 당선 가능성 고조 및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에 환율은 1,369.90원까지 레벨을 높였다. 그러나 외환당국 경계감 작용으로 환율의 상승세가 후퇴하며, 1,368.6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6.2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14.84원이다.

전일 달러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 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1364.50	1373.30	1363.70	1368.60	1366.50

전일 엔화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
	910.52	916.80	910.39	910.97

전일 유로화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
	1479.99	1489.67	1478.96	1482.24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	
	보장환율(수출)	-0.9	-5.62	-12.58	-23.3
	결제환율(수입)	-0.55	-4.55	-10.67	-19.98

*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
* 해당월 말일(영업일)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
*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에서 확인가능

금일 전망	견조한 미국 경제 상황에...1,37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2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68.60) 대비 2.70원 상승한 1,369.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및 유로화 약세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9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.4% 증가해 예상치(0.3%)와 이전치(0.1%)를 상회했다.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4.1만건을 기록하며 컨센(25.9만건)을 하회했다. 미 소비 호조와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에 연준의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며, 달러인덱스는 0.25 상승한 103.77을 기록했다. 한편 ECB는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. 유로화는 연속적인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약세폭이 확대됐다. 엔

화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약세를 보였다. 달러화 강세 및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금일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입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 및 국내증시 외인 자금 이탈 등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당국 미세조정 경계, 수출업체 고점매도 등은 환율의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

<p>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</p>	<p>1368.00 ~ 1377.00 원</p>
<p>체크포인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4044.5 억원 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70원 ↑ ■ 美 다우지수 : 43239.05, +161.35p(+0.37%) 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85.36 억달러 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3933 억원

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